

추석 앞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 나서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직원들, 상수도 사업장 보호구역 정화 활동 추진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자)는 18일 전주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사업장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집중 정화활동을 펼쳤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18일 전주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사업장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집중 정화활동을 펼쳤다.

전주시 수질관리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정화 활동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직원들은 명절을 앞두고 낙엽과 잡초 제거 및 배수로 정비에 구슬땀을 흘리며 상수원 수질 유지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민의 집 앞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급압배수지 등 10개의 배수지와 팔복정수장 등 15개 소 상수도사업장 주변 무성한 풀이나

낙엽, 벌레 등 환경정비와 정화 활동을 통해 상수도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청정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수도 위생관리와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물 30만㎡ 예초 작업 및 정기적인 배수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청정 1급수인 용담호를 상수원으로 고산정수장으로 생산된 물이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해 공급되는 전주시 수돗물의 각 과정별로 정확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인 59개 항목보다 48개 많은 총 10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용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상수도 사업장 보호구역 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으로 가족과 따뜻하고 불편 없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방한나뉘티룸, 저소득 조손 가정 100세대 1000만원 지원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방한나뉘티룸(대표 방한나)은 18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자체 개발한 화장품(엑소원큐텐 스텝셀 앰플)의 출시한 달을 기념해 판매 수익금 전액(100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방한나뉘티룸은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 관리 전문성을 갖춘 미용뷰티숍으로, 24년 이상 경력의 방한나 원장이 전주점(중화산동)과 군산점(나운동)을 운영하고 있다.

방 원장은 최근 자체 개발해 출시한 엑소원큐텐 스텝셀 앰플 화장품 첫 달 판매 수익금 1000만 원을 달성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후원금은 전주시복지재단공모금회를 통해 전주지역 저소득 조손가정 100세대의 따뜻한 추석 명절 나기를 위해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방한나 방한나뉘티룸 대표는 "판매 수익금으로 후원을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나눔을 실천해주신 방한나뉘티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1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전주시, 공공기관 입점 커피전문점 대상 실시... 식품접객업 밀집지역 대상 점검키로

전주시는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입점해 있는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1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매장 내 1회용품(컵, 빨대 등)의 사용여부, 주문 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불가 고지 여부, 키오스크 상 1회용품 사용 선택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해당 업체에 추가된 1회용품 제한 품목 및 업종별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또한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1회용 빨대, 젓는막대에 한해서만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품목은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며, 지난해 11월 24일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규제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소풍백 등이다. 추가된 품목에 한해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추가된 1회용품 규제품목의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지속 실천해 일상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야호학교 운영 현황·시설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18일 야호학교에서 현장활동을 펼쳤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길 의원)가 18일 야호학교에서 현장활동을 펼쳤다. 정성길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인후동에 위치한 야호학교 본관을 찾아 청소년 자치프로젝트, 야호전환학교 등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시설을 둘러봤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로 야호학교 본관은 2021년 개관해 2022년까지 7천 6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해왔다.

정 위원장은 "야호학교가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회는 18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주시에 백미 30포(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북대병원 간호사회, 백미 기탁

위기가구 지원 위해 전주시에 전달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회는 18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주시에 백미 30포(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회는 환자 사랑 후원과 취약계층 나눔 봉사, 전북대학교병원 발전 후원 등 환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재직간호사로 구성된 활발히 활동 중인 단체이다.

전북대학교병원원은 이동학대 피해 가구의 지원을 위해 협약된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옛 이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으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치료 및 상담 등을 통해 이동학대 피해 가구의 회복을 지원해왔다.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전북대학교 병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학대 피해 가구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서서 협업하는 등 피해 아동을 치료하고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간 현상 해은 간호사님들의 마음을 모아 전주시 위기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후원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은 18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복지재단-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맞손'

전주시복지재단이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건설업계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18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건설근로자 자녀 학업 및 생활지원 △청년 건설기능인 미래설계 첫걸음 지원 △지역사회 복지발전 및 사회공헌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교류하고 협력하면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며 "협약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